

# 「학자의 이야기」에 나타난 아이러니\*

선 희 정

연세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캔터베리 이야기』 중 「학자의 이야기」(*The Clerk's Tale*)는 중세 때에는 매우 인기가 있었지만 20세기 초반까지 적대적인 반응이 이어졌고, 이후 해체와 독자 반응, 신역사주의, 페미니스트 비평에서 일부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대부분의 현대 비평가들은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이다. 의지, 여성다움, 한결같음, 인내, 사랑의 전형인 그리젤다(Griselda)라는 “온순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러우며”(benigne, verray, feithful; 343)<sup>1</sup> 겸손하고 복종적인 아내와 그녀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남편 월터(Walter)의 이야기가 21세기에 환영 받기는 힘들다. 절대적인 복종이라는 결혼 서약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들의 목숨까지도 저버리는 그리젤다의 행동이 과연 도덕적인지와 그러한 인내가 가능한가라는 도덕성과 개연성의 문제를 일으킨 이 이야기에 대해 미들턴(Anne Middleton)은 『캔터베리 이야기』 중 가장 독자의 해석력을 시험하는 이야기라고 평가한다(“Clerk” 121). 한 가지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B5A07035994).

<sup>1</sup> 초서의 인용은 Geoffrey Chaucer, *The Riverside Chaucer*. Ed. Larry D. Benson,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1987)을 따르고 「총서시」는 GP로 표기하고 행수를, 「학자의 이야기」는 행수만 표기함.

도덕적 미덕을 지키기 위해 다른 미덕을 포기해야만 하는 이 이야기는 카러터즈(Mary Carruthers)가 말했듯이 언제나 독자를 당혹과 반감의 정서 상태에 남겨 놓는다(222). 「학자의 이야기」는 미첼(J. Allan Mitchell)의 지적대로 도덕적이고 교훈적이라기보다 극악무도한 이야기로 ‘하나의 도덕적 난제’(a moral challenge; 2)이다. 가장 교묘하고 미묘한 이야기로 현대에까지 논쟁의 한 가운데 있는<sup>2</sup> 이 이야기의 도덕성은 독자의 도덕성을 측정하는 이야기이기에 심도 깊은 관심을 받을 만하다.

카러터즈는 「학자의 이야기」에서 그리젤다의 고통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월터의 잘못이며, 희생자의 순수함과 그녀에게 고통을 주는 월터의 잘못이 강조된다고 지적한다(229). 학자는 월터의 터무니없는 요구와 그리젤다에 대한 연민으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돌리는 대신 이러한 점들을 증폭시킨다. 그 효과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카러터즈는 애초에 왜 그러한 유쾌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기로 선택하고서 더욱 매력 없게 만들어 문제적인 이야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222). 월터의 시험 아래 그리젤다는 비인간적인 자기 억제를 보여 이야기가 알레고리로 용해되거나 부조리(absurdity)가 되어 버린다는 피어살(Derek Pearsall)의 지적은(269) 학자가 왜 이야기를 이런 지경까지 만들었나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레이먼(Donald Reiman)의 주장대로 예술가가 터무니없는 플롯을 더욱 터무니없게 만드는 것은 풍자하기 위해서이다(368). 초서는 「학자의 이야기」에 서술상의 그리고 도덕적인

<sup>2</sup> 인내하는 아내라는 모티프는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치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에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하에서 억압받는 여성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거나 오히려 침묵으로서 강력하게 저항해 남성을 굴복시킨다는 근래의 페미니스트 비평과 젠더의 전복에 관심을 기울이는 연구가 있다. 예를 들어, 랜햄(Richard Lanham), 한센(Elain Hansen), 조조지아나(Linda Georgianna)는 이 이야기를 여성의 전복적인 침묵이나 침묵의 전복의 시로 이해하고, 스프링(Andrew Sprung) 또한 그리젤다의 완전한 묵종과 침묵의 향의를 일종의 저항이라고 본다(359). 그린넬(Natalie Grinnell)은 여성인 그리젤다를 남성인 예수나 욕(Job)에 비유하여 성을 전도(gender reversal) 시킴으로써 가부장제에 대한 대응, 남성 지배에 대한 도전이라고 본다(21; 26). 로시터(William Rossiter)도 그리젤다가 가부장제의 희생자라도 또는 그러한 가부장제를 전복시키는 것으로도 읽혀질 수 있다고 한다(181). 초서가 그리젤다의 이야기를 통해 가부장적 권위를 약화시키고 젠더 관계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최근 연구 성향은 여성의 미덕과 남성의 잔혹함이 상호의존적이라는 것에 주목하여 월터와 그리젤다의 이야기는 성적/정치적 지배의 문제로 정치적/가정 내의 지배는 상대가 인내할 때 더욱 성할 수 있다는 힘의 역학에 관한 것이다.

복잡성을 부여했기에 이야기 전체를 통해 의미와 의도가 문제인 이야기가 되어 버렸고, 미첼의 말대로 이야기의 도덕적 모범(moral exemplarity) 면에서 다원적(polyvalent)이기에 매력적인 이야기(3)이기도 하다. 학자는 그리젤다가 고통을 드러내지 않는 인내로 월터에게 도전하듯이 그의 이야기로 독자에게 도전한다.

초서는 세버스(J. Burke Severs)의 연구가 보여주듯 보카치오의 원래 이야기를 라틴어로 번역한 페트라르카의 이야기와 이를 번역한 프랑스 운문(*Le Livre Griseldis*)을 바탕으로 하지만, 원전에 없는 요소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원전에 있는 것을 생략하기도 하여 인물과 이야기 기법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창출해 내었다(229-30). 세버스의 말처럼 초서는 페트라르카판과 다르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월터를 조금 더 완강한 의지를 가진 무정하고 잔인한 사람으로 만들었다(231). 보덴(M. C. Bodden)의 지적대로 페트라르카 이야기에서 월터가 슬픔을 내보이는 것을 초서는 의도적으로 감추고 억압한다(62). 반면 그리젤다의 완고한 충절을 강조하는데, 스피어링(A. C. Spearing)이 부른 것처럼 “극악무도한 결혼 계약”(monstrous marriage-agreement; 93)인 절대적인 복종에 충실한 그리젤다는 요구되는 것 이상으로 남편에게 복종한다. 스프링의 지적처럼 세버스의 원전 연구에서 처음 지목되어 솔터(Elizabeth Salter)를 비롯한 많은 연구에서 분석되었듯이 초서가 페트라르카를 번역하면서 일련의 조용하고도 완곡한 항의와 비난을 도입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346). 이는 이야기를 역경에 처해서의 한결같음이라는 도덕적 교훈이 강한 종교적 알레고리로 만들기 위해 라틴어로 번역하고 추상화시킨 페트라르카와 자신을 구분하는 것이다. 두 가지 원전과는 다르게 초서는 한결같이 월터의 시험에 대해 비판적인 화자를 창조해 내었다. 자신이 하는 이야기의 도덕적인 비평가로서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초서는 이야기와 이야기를 하는 사람 사이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낸다(Pearsall 274). 학자가 보카치오의 라틴어판인 페트라르카와 이의 프랑스 번역에 가한 첨가와 수정은 한 현대 비평가의 말처럼 “극히 일부만 이해하는 문학적·비평적 위트의 행위”(a rarefied act of literary-critical wit; Hansen 197)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서술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모으는 중요한 비평적 문제가 된다. 순례자들 중 가장 지적인 학자의 이야기는 당연히 조금 더 미묘한 의미층을 형성하고, 그 이면에 중첩된 아이러니로 가득한 이야기는 그의 내면의 복잡성이 투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오랫동안 주로 종교적 알레고리나 결혼의 관점에서 다뤄지던 「학자의 이야기」는

진지하면서도 코믹한 아이러니스트인 학자가 이야기에 가져온 아이러니와 역설, 긴장 속에 숨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 직접적인 조명을 크게 받아오지 못한 학자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인물이다. 초서의 순례자 중 가장 말이 없고 학식 있는 학자를 부정적인 견지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 「총서시」에서 그는 의심할 여지없이 순례자들 중 가장 존경할만한 인물 중 하나로 그려진다. 「총서시」와 학자의 서시는 일관성 있게 학문에 열심이며 그 외엔 별 관심이 없는 조용하고 진지한 인물로 학자를 그린다. 키트리지(G. L. Kittredge)가 학자를 “온화하지만 엄격한 윤리학자”(an amiable but austere moralist; 62)라 규정하고 그의 이야기를 중세 때 사랑 받던 고통 아래 인내라는 미덕에 대한 과장적인 도덕적 교훈 이야기라고 평했을 때, 이는 대부분의 비평적 의견을 잘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동료 순례자를 묘사하는 초서라는 서술자는 “여러분이 이해해 주실 테지만 저의 분별력은 부족합니다”(My wit is short, ye may wel understonde; GP 746)라고 말하듯이 순진하거나 아이러니컬하기에 그가 그린 순례자들의 모습은 부분적으로만 옳다. 그래서 수수하고 진지하게 묘사된 학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만 사실이고, 그의 인물됨이나 성격의 다른 면은 그가 하는 이야기에서 드러나게 된다(Reiman 357). 그렇기에 레이먼 또한 「총서시」에서나 그 이후에서의 학자는 경건하고 지적인 모습뿐이어서 그가 동료 순례자나 비평가들이 인지했던 것보다 더 미묘한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이야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70). 레이먼은 학자의 외골수적인 지식을 향한 열정으로 모든 순례자들 중 가장 세속으로부터 격리된 세상사로부터 먼 사람이라고 하지만(370), 그의 이야기는 남편과 아내라는 가정 내 권력 투쟁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의 대결, 그리고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권력 관계 등 너무나 세속적인 권력과 지배, 복종의 문제를 담고 있다. 베일리(Harry Bailey)의 학자에 대한 인상(1-14) 역시 순례자 초서와 동일한데, 학자가 하는 이야기에는 잠재적인 전복성이 담겨 있다. 존스톤(Andrew Johnston)이 어떤 의미에서건 초서가 의식적으로 내세운 자신의 라이벌 중 법률가(Man of Law)보다 학자가 훨씬 더 위험한 경쟁자라고 한 것은(157) 그 만큼 학자의 이야기 이면에 내재한 전복성이 크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술자 초서나 베일리에 의해 훌륭한 학자, 진지한 도덕주의자로 인정받는 학

자는 레이먼의 지적대로 초서의 유일한 이상적인 인물은 아니다(370). 처음에 우리는 학자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러나 존스톤은 특히 “그는 기꺼이 배우고 기쁘게 가르친다”(gladly wolde he lerne and gladly teche; GP 308)라는 구절이 도덕적 완벽함과 가깝게 들리지만, “학문 그 자체를 위한 배움”이 중세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상이 아니었음을 지적한다(147). 전통적으로 『캔터베리 이야기』에서 이상적인 인물들은 기사(Knight), 시골 사제(Parson), 농부(Plowman)이다. 학자가 여기에 끼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이 세 명이 각각 세 계급의 모델이라는 것 외에 학자가 가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존스톤은 학자가 그가 속한 사회 분야와 그 가치를 보여주는 형식이지만 사회적 지위와 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초서의 아이러니는 겉으로는 세속적인 삶을 경시하는 듯 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명백히 세속적인 가치를 거부함으로써 그와 정반대로 보이는 사회의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위계질서와 권력 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검은, 또는 붉은 가죽으로 제본된 책들이 증명하듯이 학문적인 세계조차도 귀족들의 과시적 소비 형태에 상응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150). 일종의 속편으로 15세기에 초서의 미완성 『캔터베리 이야기』를 지속하려던 시도였던 『베린 이야기』(*Tales of Beryn*)는 『캔터베리 이야기』에 대한 당대의 비평적 반응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서 학자는 숨김없이 그의 초도덕성(amorality)을 드러내 학자에 대한 평가는 비판적이거나 적어도 미심쩍어 하는 것이다(Johnston 150-53). 존스톤에 따르면 초서는 학자의 진정성에 애매한 빛을 던진 후 후기(Envoy)에서 학자가 세속적임을 확인한다(153). 바흐친식의 카니발적이고 다성적인 후기는 명백히 「총서시」에서의 학자에 대한 시행과 대조를 이룬다. 바흐친에게 중세 “카니발”은 반위계질서적이고 혁명적인 지배층에 대한 하층 계급의 저항의 표현이고, 이러한 카니발적 활동에 적극 참여한 것은 중하층 성직자, 중세 대학생들이다(Johnston 153). 존스톤은 학자가 점점 더 힘을 얻어 전통적인 가치 체계를 전복하는 커져가는 지적 문화의 대표로서 중요한 인물이 된다고 주장한다(154).<sup>3</sup> 「학자의 이야기」는 학자의 미묘하고 복잡한 사고를 반영하여 중층의 아이러니로 가득하다. 학식 있지만 가난한 학자는 사회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어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른 인물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sup>3</sup> 에스텔(Ann W. Astell)은 초서가 중세 후기 영국의 네 번째 계급으로 대학 공동체를 대표하는 학자를 이상적인 네 명의 순례자 중 하나로 소개한다고 본다(21).

드러나지 않았던 학자의 내면의 회의, 정체성, 개성이 어떻게 그의 이야기와 스토리텔링 속의 아이러니와 역설, 전복성으로 나타나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종교적 알레고리와 「바스의 여인 이야기」에 대한 응수 속에 숨은 아이러니

보통 「학자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하나는 종교적인 알레고리로 보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학자보다 앞서 이야기를 한 바스의 여인(the Wife of Bath)이 결혼에 있어 남성에 대한 여성의 지배를 주장한데 대한 응수로서 남성의 완전한 지배를 주장하는 이야기로 보는 것이다. 그리젤다와 월터의 이야기를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로 보건 아내와 남편 사이로 보건, ‘복종적’(Submissive)이며 무한한 인내심을 지닌 그리젤다 이야기는 깊은 동정과 이보다 더 깊은 반감을 불러일으키며 그녀의 미덕이 진정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이야기 속에서 자주 읊과 성모 마리아, 예수에 비유되는 그리젤다의 이야기는 “견뎌낼 수 없이 힘든”(inportable 1143) 것이기도 하지만 비윤리적인 것이다. 미첼의 지적대로 『캐터베리 이야기』의 다른 이야기나 대부분의 종교적 교훈이 담긴 이야기보다 「학자의 이야기」가 모범적이거나 현실적이지 않다는(5) 점은 이 이야기가 가진 한 가지 아이러니이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그리젤다의 이야기는 도덕적인 교훈 이야기인 우화라기보다는 수사학적 과도함과 모순을 지닌 페로디에 가깝다는 미첼의 지적(6)에 공감한다. 월터와 그리젤다의 이야기는 어떠한 설명도 완전한 설득력을 갖지 않고, 어떤 결정도 윤리적으로 충분히 정당화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교훈적인 이야기인 「학자의 이야기」는 하나로 아우르는 도덕적 원칙이 부재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종교적 알레고리나 바스의 여인에 대한 응수라는 두 가지 해석 모두에서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 있다.

「학자의 이야기」는 여러 문제들로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에 의해 말해진 것으로, 학자는 그가 처한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다. 이야기에서 그는 신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의문과 회의를 숨길 수 없다. 그래서 그가 종교적인 교훈, 신에 대한 완전한 복종과 그것에서 얻는 행복을 이야기 하는

데도 그의 의도와 이야기 사이에는 어떤 간격이 생기게 되며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된다. 「학자의 이야기」를 종교적인 알레고리로 볼 때, 결코 인내와 평온을 잃지 않는 그리젤다는 남성에 의해 고통 받는 한 여성인 동시에 신이 인간에게 주는 시련과 고난을 참고 견디는 ‘만인’(Everyman)이기도 하다. 그리젤다의 인내는 욕(932; 936-37)의 인내와 비교되어 고통으로 인하여 그녀는 성인의 위치에까지 이른다.<sup>4</sup> 또 그리젤다는 예수와 같은 존재(440-41)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리젤다가 월터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할 때 인간으로서 죄를 짓게 된다는 점이다. 피네건(Robert Finnegan)은 아퀴나스의 『신학대전』(*Summa Theologica*)에 의하면 만일 어떠한 맹세를 지키는 것이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것이 될 경우라면 그 맹세와 서약은 지키지 않아야 한다며 그리젤다가 남편에게 복종의 서약을 지킴으로써 아이들의 죽음을 가져왔기에 이는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한다(309-312; 321). 아퀴나스에 의하면 죄를 포함하고 있는 맹세와 서약은 어떠한 구속력도 없다. 월터의 첫 두 시험은 자신의 아이들의 살해라는 신과 인간에 대한 가장 커다란 죄의 형태를 띤다. 그래서 독자는 아이들을 순수히 내줄 때 그리젤다의 절대적인 복종의 비도덕성에 충격을 받거나 마음이 상한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는 물론이고 자신의 아이들의 목숨까지도 모두 월터의 뜻에 맡긴다. “당신은 우리의 주군이시니 당신의 것을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Ye been oure lord; dooth with youre owene thyng / Right as yow list; 652-53)라는 그리젤다의 말은 창조주인 하나님께 피조물이 바치는 절대적인 순종을 연상시킨다. 그런데 그리젤다의 완전한 겸손(337; 727; 750)의 모습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그리젤다의 고통을 참는 인내와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신 또는 신의 대행자로 해석되는 월터에 대해 반감을 품게 된다.

종교적인 우화로 이 이야기를 논할 때 하느님으로 비유되는 월터는 그리젤다로 하여금 자아를 잃어버리고 어머니로서는 무책임하게 만듦으로서 오히려 비종교적인 인물이 되어 버린다. 월터는 그리젤다의 “아내로서의 한결같음”(wyfly steadfastnesse; 1050)을 극한까지 시험해 보고야 알 정도의 통찰력을 지닌 인물이다. 그리젤다는 월터에 비해 자신의 무가치함을 주장하지만(502-04; 509; 652-53; 814-26), 우리가 보기엔 그녀가 월터보다는 더 가치 있는 인물이다. 카리

<sup>4</sup> 그리젤다를 욕에 비유해서 신에 대한 인간의 영혼을 대표하는 존재로 만들지만 분명히 욕과 그리젤다의 시험을 구분하면서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

더즈의 지적처럼 월터가 시험하고자 하는 것은 아내의 덕성이 아니라 자신의 변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녀의 능력이다(225). 학자는 결코 월터를 변호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아내를 시험하는 것이 무분별하고 무의미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학자는 456-462행에서 거듭해서 아내를 시험해 보고자 하는 월터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아내를 시험하여 두려움과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이 무슨 이득이 있는 일인가라며 월터의 행위가 지나침을 “사악한”(yvele; 460), “잔인한”(cruel; 740), “부도덕한”(wikke; 785)이란 형용사를 사용하여 청자나 독자의 비난에 앞서 월터의 잔인함을 직접 비난한다(456-62). 월터는 잔인함과 사악함과 연관되며(74-75; 723; 785), 그리젤다를 시험하는 월터의 행동에 대한 정당화는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학자의 눈에 그리젤다의 충실함은 확실히 증명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험은 불필요하고(457; 461; 621) 과도한 것(456; 622; 697)이며 너무 잔인한 것(460; 698; 700; 1049)이다. 학자는 월터를 가학적인 폭군, 최악의 남자이자 가장 잔인한 남편으로 묘사한다(Hansen 190). 베이커(Denise N. Baker)에 따르면 학자의 월터에 대한 명백한 노골적인 비난은 청자/독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평가하게 만든다(63). 신과 월터를 동일시 할 경우 신은 사람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괴물이 되어, 일반적으로 말하듯, 월터의 폭정(tyranny)은 신의 ‘지배’(governance)를 희화화한 것이 된다. 학자가 신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월터를 비난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신실함과 신학의 문제와 직결된다. 그래서 레이먼도 순례자들 중 시골 사제가 분명히 학자보다 더 고귀한 종교적인 이상임을 인정한다(370).

이 이야기는 학자가 주장하듯이 교훈적 이야기(exemplary tale)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표면상으로 신은 절대 이유 없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며,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더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주시려는 것이므로 기쁘게 그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는(1160-62) 이야기이다. 그러나 학자는 이처럼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는 인물에게 내리시는 신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 그는 단지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for oure beste; 1161)라고만 말하여 종교적인 도덕이 불완전하게 남는다. 학자가 정당화하려 하지만 신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설명되지 않고, 그 시험에 완전히 따라야만 하는지에 대한 학자의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다.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없다. 하나의 ‘신비’(mystery)일 뿐으로 알 수 없는 신의 뜻에 대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리젤다가 월터와 결혼할 때 가



저온 믿음(Faith) 뿐이다. “당신에게 제가 가져온 것은 믿음과 알몸과 순결 이외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To yow broghte I noght elles, out of drede, / But feith, and nakednesse, and maydenhede; 865-66)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인간이 신에 대해 가져야 할 믿음을 의미한다. 학자는 그리젤다가 처한 상황의 비애감을 높여 아무리 심하게 고난을 겪어도 신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문과 회의를 드러내 보인다. 그리젤다와 월터의 이야기는 고통이 아무 이유 없이 주어지지 않고, 그렇게 보이더라도 그것은 신의 뜻의 일부이니 언제나 참고 인내하라는 기독교적인 교훈의 이야기이지만, 그것을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게 만든 학자의 교묘한 의중에는 신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그 자신의 회의가 드러나 있다. 이리하여 일견 종교적인 이야기로 보이지만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신에 대한 해소되지 않은 의문의 이야기라는 아이러니를 만들어 낸다.

「학자의 이야기」는 바스의 여인이 제기한 결혼에 있어서의 지배권이라는 주제를 계속하여 다루고 있다. 키트리지는 소위 초서의 “결혼 그룹”(Marriage Group)에 속하는 이 이야기가 동료 순례자들에게는 바스의 여인이 주장하는 여자가 남자를 지배해야 한다는 이단적인 신조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71). 남편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여인 그리젤다는 바스의 여인과는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인물이다. 처음부터 결혼을 구속(145-47)이라 생각하는 월터는 1부부터 아내를 잔인하게 시험하는 것이 가능한 인물임이 드러난다. 젊고 강하며 능력 있는 지도자인 그는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음과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는 군신간의 지배와 복종 관계를 결혼 생활에 더 심하게 적용하려 한다. 월터는 그리젤다에게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그에게 완전히 복종할 것을 맹세케 한다(351-57). 그리고 이에 대해 그리젤다는 절대적인 복종을 서약한다(362-64). 월터는 결혼을 남편의 지배로 받아들이고 그리젤다에 대한 시험은 이러한 그의 믿음의 표현이다. 월터가 바라는 대로 완전한 복종 상태에 있는 그리젤다가 겪은 고통은 학자가 마지막에 인정한대로 실제로는 “견딜 수 없는”(inportable; 1144) 것이다. 가부장적 남성 중심 사회였던 중세에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아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을 때와 똑같은 죄”(Coulton 615)를 범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렇더라도 그리젤다의 복종은 심지어 남성 독자들에게도 반감을 불러일으켰다(Ellis, “Color” 188). 월터가 그리젤다를 시험하면서

즐기고 있는 것은 힘/권력이다. 이러한 월터의 모습은 부정적인 것으로 이 이야기는 표면상으로는 남성의 지배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월터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극단적인 월터의 경우이긴 하지만 학자가 정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인 남편의 지배를 비판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여기서 학자는 다른 신학자와는 다른 자유로운 사상가의 모습을 보인다.

그리젤다는 월터의 잔인한 시험을 참고 견뎌 결국 행복해지지만 학자의 초점은 남편에게 지배받고 복종해야 하는 그리젤다가 겪은 건디기 어려운 고통이다. 그리젤다는 어쩌면 바스의 여인보다 더 남성지배적인 가치관을 전복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쿠퍼(Helen Cooper)의 말처럼 그리젤다가 복종적이어서 억압적인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규범에 순응하는 것 같지만, 이 이야기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으로 작용한다(199). 딘쇼(Carolyn Dinshaw)도 여성의 열망과 여성의 경험을 막는 가부장적 모델을 지적함으로써 오히려 바스의 여인보다 더욱 급진적인 가부장적 모델에 대한 개정이라고 한다(137). 죽은 줄 알았던 아이들과 아내의 위치를 되찾았을 때 기쁘고 즐거워야 할 그녀의 모습을 학자는 “오 그녀가 정신을 잃는 것을 보고, 그녀의 가련한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애처로운 일인가!”(O which a pitous thyng it was to se / Hir swownyng, and hire humble voys to heere!; 1086-87)라며 가련하게 묘사한다. 그녀가 지금 누리는 행복은 처음부터 그녀가 당연히 누렸어야 할 것인데 그동안 부당하게 고통받았기 때문이다. 학자는 후기에서 월터가 그리젤다를 시험했듯이 아내를 시험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아내들은 남편에게 맞서라고 충고한다(1183-1212). 그리하여 이러한 후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지배를 주장하는 듯하지만 실은 여성의 절대적인 복종에 대한 비판이라는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된다.

「학자의 이야기」는 단순히 결혼에 있어 남성에 대한 여성의 지배를 주장하는 바스의 여인에 대한 대응 또는 옹호의 이야기로 해석될 수 없다. 학자는 월터와 그리젤다의 이야기를 통해 남성 지배와 여성의 복종 관계 사이의 긴장을 교묘히 창출해 내었다. 「학자의 이야기」는 시작과는 반대되는 위치에서 끝맺고 있다. 학자는 그의 후기에서 명백하게 한없는 그리젤다의 인내와 “바스의 여인과 그녀의 모든 성”(for the Wyves love of Bathe-- / Whos lyf and al hire secte; 1170-71)의 자기본위적인 남편에 대한 지배를 대조시킨다. 그리젤다가 보여준 순종과 인내는 그녀와 함께 죽었으니 바스의 여인의 주장에 따라 여성들보고 남편

을 지배하고 맞서라고 한다(1183-1212). 그러나 여기서의 여성들의 모습 역시 도저히 본받을 수 없을 만큼 이상화된 그리젤다의 모습 만큼이나 희화화된 것이다. 후기에서의 과장된 언어(1195-1206)는 그가 바스의 여인이나 그리젤다 모두 극단으로 여감을 보여준다. 그리고 월터와 그리젤다의 이야기에서 느끼는 것은 둘 다 이해할 수 없고 유쾌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이다. 그들의 행위는 부자연스럽고, 월터의 극단적인 잔인함과 그리젤다가 오랜 시간 인내하는 극도의 고통은 우리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킨다. 학자는 지배적인 남편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그리젤다를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가 요구하는 만큼의 공감을 우리가 그녀에게 느끼기 힘들게 만든다. 그는 남성지배에 대한 바스의 여인의 증오도 이해하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바스의 여인이 주장하는 여성 지배에도 반감을 드러낸다. 독신인 학자는 남편이나 아내의 지배 둘 다를 지지하지 않는다. 후기에서 여성 편을 드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그는 여성이 남성의 지배에 복종하기를 기대하고 희생자의 힘을 과소 평가하는 월터와 같은 반페미니즘 남성과 자신을 구별한다. 그러면서 우월한 지식과 위트를 지닌 학자는 정작 남성과 여성의 전쟁으로부터 거리를 둔다. 결국 그는 여성 편도 그 반대도 아님을 시사한다(Hansen 204). 월터의 행동에 대한 학자의 비난은 너무 많은 힘을 남편에게 주는 기독교에 대한 바스의 여인의 공격을 강화한다. 그러나 학자의 진짜 비난의 목표는 ‘지배’(maistrye)이다. 어떤 지배든지 그는 과도한 지배와 권위에 저항한다.

### III. 월터와 그리젤다의 아이러니와 피해자/약자가 이긴다는 역설

존스톤은 「학자의 이야기」의 주제를 분명히 정치적 맥락 속에 놓여진 여성의 복종과 고통으로 본다(142). 존스톤에 의하면 법률가, 학자, 의사(Physician), 이 세 명의 학자들(Clerks)은 모두 덕스러운 여인이 남성 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이야기를 하며 두드러지게 정치적인 세계 속에 이러한 폭력을 위치시킨다(154). 월터의 결혼은 후계자를 생산하라는 백성들의 압박 때문에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결혼 전 월터와 그리젤다의 영주와 백성이라는 권력관계는 결혼 후 더 공고해진다. 그러므로 이야기는 윤리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인 권력 관계를 학자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를 보는 것은

흥미롭다. 『켄터베리 이야기』에서 법률가가 가능한 바쁜 것처럼 보여서 자신의 중요성을 드러내 보이려고 노력하며 권력에 대한 그의 욕망에 솔직한 반면, 학자는 가능한 한 그의 열망을 숨겨왔다. 그의 전략은 법률가의 “승자가 이긴다”(Winner Wins)는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긴다”(Loser Wins)는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Johnston 162). 도덕적이고 내적인 그리젤다와 정치적이고 외적인 월터라는 두 힘 사이의 긴장이 텍스트의 언어 속에 짜 넣어진다(Phillips 117). 이야기는 인내(현세적인 용기의 형태)와 세상적인 기쁨에 대한 애착의 결여(정신적인 독립의 형태)를 통해 나약하고 힘없는 자가 억압에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이다(Phillips 116). 한센은 월터를 멈추게 한 것은 세 번의 시험 후에 그리젤다가 폭군적인 남자에게 온전히 짐으로써 결국 계속 이긴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라고 한다(192). 인내하는 그리젤다 이야기는 여성과 권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명백한 역설을 표현하고 있다.

월터는 “분별 있고”(discreet; 75), “사려 깊은”(thoughtful; 296) “신중한 사람”(A Prudent man; 427)이라 묘사된다. 하지만 아내를 시험하고픈 “기이한 열망”(merveillous desir; 454)에 사로잡혀 전혀 분별 있지도, 사려 깊지도 않은 아이러니를 보여주게 된다. 월터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은 월터처럼 아내를 잔인하게 시험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1135-39)는 아이러니컬하게 월터를 비꼬는 것이다. 월터의 아이러니 중 하나는 그리젤다를 시험하느라 정작 중요한 자신의 행복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12년 동안이나 사랑스런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 아버지로서의 행복을 맛보지 못하였다. 한센에 의하면 페트라르카와 프랑스판에서 월터는 성과 나이를 초월한 그리젤다의 미덕에 감탄하는 반면 『학자의 이야기』에서는 여주인공의 원형적인 여성성(femaleness)에 주목한다. 월터의 동기가 두 원전과는 다른데, 그가 아내에게서 구하고 시험하고자 하는 것은 그녀의 인내심이나 복종하고 서약한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이상적인 중세 여성의 구현으로서의 여성성이다(198). 결혼한 후 월터는 끊임없이 그녀의 “여성성”(wommanheede; 1075)을 시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바로 여성다움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며 그리젤다가 모성이라는 여성성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내로서 지녀야 할 참을성의 꽃”(this flour of wyfly pacience; 919)이라 할 수 있는 그리젤다는 가장 기본적인 여성성인 모성을 포기해야만 그녀의 여성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상

황에 처한다. 이에 그리젤다는 자기의 의지로 월터에게 자신의 여성성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또 다른 여성성인 모성을 억압하고 희생한다.

월터와 그리젤다 이야기의 또 하나의 아이러니는 그리젤다가 한결같은 충성과 순종을 보이면 보일수록 월터는 더욱 더 잔혹한 방법으로 그것을 시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젤다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러니와 역설은 한센의 지적처럼 그녀가 선할수록 그녀는 더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하거나, 그녀가 더 많이 고통을 겪을수록 그녀는 더 나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192). 그리젤다가 월터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여 3부에서는 딸을, 4부에서는 아들을, 그리고 5부에서는 그녀의 아내로서의 위치를 잃게 될 때 월터로부터 더 큰 사랑과 감탄을 얻게 된다는 맥콜의 지적(263)도 아이러니 측면에서 생각해볼 만하다. 그리젤다의 끔찍하고 부당한 고통은 부분적으로는 그녀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서 기인한다. 이는 가학과 피학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책임에 따르는 잔인한 본질을 그리젤다의 비인간적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터무니없이 잔혹한 시험에도 그리젤다가 한결같은을 보이자 월터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냉혹한 마음이 그녀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차게 된다(1049-50). 월터와 그리젤다가 일종의 게임을 한다면 이 게임에서 결국 승리하는 쪽은 그리젤다이다. 권력을 쥐고 괴롭히는 자가 패배하게 되어 있는 게임인 것이다. 월터의 힘은 사회적으로 절대적이고 심리적으로도 그리젤다가 그녀의 의지를 완전히 포기한 성인과도 같은 건인주의가 허락하는 한 절대적이다(Ellis, "Domestic" 106). 이러한 압도적인 힘을 가졌지만 결국은 그리젤다가 승리하는 아이러니와 역설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그리젤다의 복종이 맹목적인 것이 아님은 많은 비평가들이 지적해 왔다(Pearsall 271). 딸을 내주며 한 "나 때문에 죽게 되었으니"(for my sake; 560)라는 말은 그녀가 딸의 (가상의) 죽음에 자신의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피어살은 그녀가 처한 상황에 대한 냉소적인 인식,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필요성 뿐만 아니라 그 부당함을 알고 있는 의식이 그녀의 복종을 더욱 의미 있고 역설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가진 것을 표현한다고 본다(272). 블라마이어즈(Alcuin Blamires)는 월터와의 관계에서 그녀의 굳건함이 유순한 겸손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역설이 이 이야기의 매력의 도발적인 핵심이라고 한다(173). 엘리스(Deborah S. Ellis) 역시 그리젤다의 경우가 온순함이 무기력함과 혼동되는 것을 거부하는 예임을 강조한다("Color" 191). 월터가 백성들의 의지에 복종할 때 그

의 지배가 강화되는 것처럼(McCall 262) 이는 힘의 역학의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그리고 월터의 부당한 잔인함에 복종하는 것이 어떻게 미덕이 될 수 있는지도 아이러니이다. 래비의 지적대로 그리젤다가 월터의 아내로서 이상적인 모습에 가까이 갈수록 그녀는 더욱 더 기이하고 불가해한 존재가 된다(245).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아내의 이야기를 한 후에 학자는 덧붙여진 후기에서 여성의 절대적인 지배를 주장하는 바스의 여인과 여성에 대한 아이러니한 찬사를 덧붙임으로써 그의 이야기를 이상하게 적용시킨다. 후기 두 번째 연에서는 「학자의 이야기」가 강조했던 겸손이라는 덕 대신에 자부심(*pride*)을, 세 번째 연에서는 복종이라는 덕 대신에 불복종(*disobedience*)을 강조한다. 학자는 이제까지의 자신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뒤집으며 바스의 여인과 모든 여성들에게 지배적으로 남편을 조종해 그리젤다와 같은 고통을 피하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그리젤다는 순수한 금에, 동시대 여인들은 합금에 비유하며 요즘은 그리젤다와 같은 여자를 발견하기가 어렵다며(1163-69) 이전에 여자들의 겸손과 충실이라는 덕목에 대해 했던 말을 철회해 버린다. 다소 무미건조하고 감상적인 그리젤다 이야기를 한 후에, 후기에서 여성의 지배 권리를 주장하는 바스의 여인을 교묘히 힐책하여 바스의 여인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것을 독자가 의식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생동감 있어진다는 피어살의 지적(275)은 흥미롭다. 켄드릭(Laura Kendrick)은 남편과의 싸움에서 더욱 호전적이 되라는 코믹한 후기에서 학자는 고통스런 외침을 의미하는 운율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소리와 의미 사이의 모순은 자신이 말하는 바와 정반대를 의미하는 아이러니를 강화한다고 주장한다.<sup>5</sup> 학자의 후기는 그리젤다의 극단적인 아내로서의 헌신과 복종에 대한 학자의 태도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한 풀리지 않은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후기는 많은 원고에 초서의 후기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초서 학자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아이러니하면서 조롱적인 결론으로 학자가 말한 것이라고 본다(Kendrick 104; Ganim 112). 진지함에서 신랄한 아이러니로 톤을 완전히 변화한 후기는 코믹 효과를 위해 갑작스런 전도와 재치 있는 말장난을 사

<sup>5</sup> 「학자의 이야기」 후기인 1177-1212행에서 학자는 “Ytaille(1178), assaille(1180), faille(1182), naille(1184), merveille(1186), entraille(1188)”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괴로움의 외침 소리인 프랑스어 ‘ahi (or ai)’, ‘aie’와 라틴어 ‘ei’와 똑같이 발음되어 운율 이루는 ‘-aille’로 끝나는 단어들을 절묘하게 18번이나 사용한다. 켄드릭 107-08 참조.

용한다. 후기는 우리가 학자에게서 기대하는 것과는 현저하게 다른 목소리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학자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겠노라고 한다(1173-76). 이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수줍어하고 조용하던 모습과는 다르다. 개님(John M. Ganim)은 후기의 그로테스크하고 개인적이고 원기 왕성하고 풍자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데, 학자의 그리젤다 이야기의 공식적인 원칙과 도덕에 반대되는 후기는 전형적인 비공식적 문화 담론이 지닌 전복적인 “카니발화된” 목소리이다(113). 후기는 학자가 억압했던 그의 일면을 드러내 보여주며, 그의 견해의 한계에 대한 내재적인 비판을 담고 있기도 하다(Ganim 121). 이러한 후기는 학자의 이야기는 결여하고 있지만 그가 지니고 있는 장난기를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에 학자의 위트의 승리이다. 지성인들이 주로 구사하는 냉소적인 아이러니(sarcastic irony)에 의존한 후기는 이야기를 단순히 반전시키며 학자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

#### IV. 학자의 내면의 아이러니와 전복성

『캔터베리 이야기』에서 여러 순례자들의 이야기는 이야기를 하는 화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 보여준다. 그러기에 이제까지 살펴본 아이러니와 역설로 가득하고 진의를 이해하기 힘든 학자의 이야기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의문을 이끌어낸다. 「총서시」에서 묘사된 학자는 그의 돈을 모두 책에 쓰는 보통 사람과는 거리가 많이 느껴지는 비세속적인 금욕주의자이다(GP 285-308). 학식 있는 학자는 진정으로 온화한 미덕을 그의 언행에서 드러낸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이야기는 전혀 온화하지 않은 이야기라는 괴리와 아이러니를 보인다. 그는 그리젤다 이야기가 사랑과 인내의 이야기가 아님을 확실히 한다. 필립스(Helen Phillips)에 따르면 「학자의 이야기」는 심리적으로 믿기 어렵고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우화이다(114). 왜냐하면 그리젤다의 겸손과 복종은 인간 본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따르지도 못할, 혹은 따라서는 안 되는 교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애매모호함과 모순,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로 가득한 「학자의 이야기」는 개님의 지적대로 단순함이 아니라 그 복잡성이 문제이다(122). 레비(Michael Raby)는 학자의 그리젤다와 윌

터의 이야기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도덕적 덕에 대한 이론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246).<sup>6</sup> 극단적인 그의 이야기와 달리 악기보다 아리스토텔레스 책 스무 권을 더 가지고 싶어 하는(GP 293-96) 학자는 무엇보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용을 중요시 여기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연구한 사람’(an Aristotelian; Armstrong 444)이다. 그는 의심할 여지없이 중용이라는 덕을 인지했을 터(Reiman 365) 모든 미덕이란 두 극단 사이에서 중용을 유지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Kittredge 62).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개연성(probability)이라 했는데, 그리젤다는 “믿기 어려운”(implausible; Hansen 204) 존재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정통한 학자는 왜 개연성 없는 이야기를 할까? “기묘하고 모순되고 비이성적인”(peculiar, contradictory, and irrational; Sledd 75), 심지어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를 논리학을 연구한 학자가 한다는 것이 이상하다.

초서는 학자의 이야기를 통해 이전 판본의 알레고리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더 많은 감정을 도입하여 인간관계에 중심을 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학자가 그리젤다를 알레고리적 인물이 아니라 좀더 사실적인 인간으로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학자가 그리젤다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자신의 감정을 투영하기 때문임은 심한 논리적 비약이 아니다. 학자는 이론가가 그러하듯 철학적인 거리를 두고 그리젤다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분명히 학자는 인물들의 사고와 열망, 기대와 감정 등을 자주 이야기함으로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의 감정과 뒤섞어 자신의 생각과 감정 역시 숨김없이 드러낸다. “나는 그녀의 가슴이 슬픔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한다”(I deeme that hire herte was ful wo; 753)라는 말로 그리젤다에 대한 자신의 공감을 표현한다. 때때로 “아이”(Allas; 251; 543; 563) 등 감탄사를 통해 그녀의 고통을 직접 느끼듯이 표현하기도 한다. 프레스(Dolores Frese) 역시 그리젤다라는 인물에 대한 학자의 감정이 흘러넘쳐 그리젤다의 의식이 아니라 고통을 겪는 학자의 의식이 커져 “두 아이에게서는 처음에는 아픔, 그런 후에는 슬픔과 고통 말고는 없습니다”(I have noght had no part of children tweyne / But first siknesse, and after, wo and peyne; 650-51)라

<sup>6</sup> 중세 학자들은 플라톤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순히 철학자와 동일시 될 정도로 유명하였고, 초서는 그의 라틴어와 불어판 『윤리학』을 알고 있었다.



는 쓰라린 비탄의 말들을 해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인 '뜻대로 하소서'라는 그리젤다의 반응에 비애감이 끼어들게 된다고 지적한다(140). 이는 학자의 그리젤다에 대한 공감과 월터를 비난하는 학자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말들로 인해 이야기의 비애감이 더욱 강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프레스는 후기에서의 바스의 여인에 대한 아이러니한 지지는 감정적으로 너무 많이 노출한 어색함을 감추면서 거리를 두는 재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142).

「총서시」와 「학자의 이야기」에 묘사된 것을 보면 학자와 그리젤다간에 묘한 공통점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쇼는 학자가 월터의 행위에 분노하게 되고 남자인 월터가 아니라 여자인 그리젤다에게 공감함을 지적하며 심지어 그리젤다와 비슷하게 보이기까지 한다고 평한다(135). 또한 단쇼는 베일리는 23행에서 보듯 심지어 학자가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러한 유사성이나 공감을 알아챘으며, “우리는 당신의 통솔하에 있고 나는 당신에게 복종합니다”(Ye han of us now the governance, / And therefore wol I do yow obeisance; 23-24)라고 베일리에게 말하는 구절에서 쓰인 “복종”이라는 단어는 그리젤다의 월터에 대한 복종과 맥을 같이 한다고 주장한다(135-36). 이러한 학자와 그리젤다의 동일시는 「총서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학자의 모습에 의해 입증된다. 그는 그리젤다처럼 “가난한 사람”(povre creature; 232)이다. 학자에 대한 소개에서 그의 “갈고리보다도 말라빠진 말과 닮아서 실밥이 보이는 옷, (...) 철학자 이면서 아직 금으로 바꾸는 돌을 발견하지 못했다”(GP 287-98)라는 구절 등은 그가 순례자들 중 그 어느 누구보다 가난함을 명시한다. 시골 사제를 제외하고 가장 가난하다고 표현된 순례자는 학자이다.<sup>7</sup> 시골 사제 역시 가난하지만 그를 묘사할 때는 물질적 가난을 세세히 묘사하지 않은 반면 학자에 대해서는 그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생생히 묘사한다. 그리젤다는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povrest; 205) 자니쿨라(Janicula)의 딸이다. 학자는 2부에서 “신이 그의 은총을 작은 외양간에 보내신다”(hye God somtyme senden kan / His grace into a litel oxes stalle; 206-07)며 고결한 덕성이 출생이나 신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학자는 자신처럼 가난한 사람에게도 덕성이 있음을 그리젤다를 통해 그리고 있다. 그리기에 그리젤다의 말이 “현명하고 부드러운 말, (...) 매우 공정한 판단”(wise

<sup>7</sup> 다른 순례자들 중 잡화상인, 염색공, 목수, 직조공, 카펫 제조공과 같은 길드 구성원들도 충분한 수입과 재산이 있다.

and rype wordes (...) juggementz of so greet equitee; 438-39)인 것처럼 그의 말은 “도덕적인 덕으로 가득”(sownynge in moral vertu; GP 307)하다.

프랭크(Robert W. Frank)에 의하면 세버스가 지적하지 않은 원전과 다른 가장 중요한 변화는 페트라르카판에서는 여러 번 있던 그리젤다의 감정 표현을 줄이거나 축소하여 침묵의 비애를 만들어 냈다는 것인데(48-49), 학자가 말이 없다는 것은 말없이 복종하는 그리젤다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리젤다의 온순함, 유순함, 복종, 금욕적인 기질, 말없는 항거와 수동적 공격성은 학자와 닮아 있다. 4부에서 학자는 월터에게서 시험의 고통을 받는 그리젤다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한센의 지적대로 학자 자신도 그리젤다와 자신의 유사성에 놀랐는지도 모른다(203). 학자와 그리젤다와의 연관을 인정한 러드(Gillian Rudd)에 의하면 학자는 그의 수줍어하는 태도로 인하여 여성화된 사람으로, 교육받았지만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계층의 대표로 여겨진다. 그리하여 여성이면서 농부이지만 바보는 아닌 그리젤다는 그의 대리인으로 읽힌다(127). 학자처럼 그리젤다는 바보가 아니다. 그리젤다의 낮은 신분 때문에 여론에 밀려 그녀를 내치는 것이라는 월터의 말이 단순히 핑계에 지나지 않음을 간파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귀한 신분의 새 신부에게는 고통을 주지 말라는 경고(1037 - 39)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래비의 지적은(236) 타당하다. 학자는 월터의 잔인하고 폭군적인 행동을 비난하며 그리젤다의 말 속에 아이러니를 집어넣는다. 예를 들면 그리젤다는 자신을 쫓아내는 월터에게 행복이었던 그 자리를 새로운 사람에게 기꺼이 내주겠다고 말하는데(843-44), 월터와의 결혼 생활이 그녀에게 행복이었다는 말은 아이러니컬하게 다가온다. 학자가 그리는 그리젤다의 모습은 이상화된 자신의 모습(an idealized image of himself)이라는 스프링의 주장(367)도 있다. 학자는 그가 지닌 학문에 대한 사심 없는 사랑 때문에 현실에서는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이다. 월터에 대한 그리젤다의 복종은 학문에 대한 학자의 사랑과 평행선을 이룬다. 모든 것을 바치지만 현세의 기쁨을 누리지는 않고 오히려 고통 받는다는 점에서 그리젤다는 학자의 일면의 또 다른 자아(alter ego)라고 할 수 있다.

한센은 학자에게서 남성 화자의 남성성, 지위, 정체성에 대한 불안을 감지한다(207). 에쉬(Laura Ashe)나 던쇼, 레러(Seth Lerer)도 발견했듯이 학자는 여성성을 지닌 사람이다. 서사에서 여관 주인인 베일리는 학자에게 “마치 이제 막 혼인한 새색시가 말없이 식탁에 앉아 있는 듯 수줍어하고 조용해, 오늘 이제까지

그로부터 말 한마디 들을 수 없었다”(as coy and stille as dooth a mayde / Were newe spoused, sittynge at the bord; / This day ne herde I of youre tonge a word; 2-4)고 한다. 새색시와 같은 암전한 행동 때문에 베일리에게 조롱당한 학자는 어떤 이야기로 그에게 대응할까? 한 가지 해석은 그가 남편의 완전한 지배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여관 주인에게 자신의 남성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암스트롱이 지적한 바 수도승(Monk)과 학자는 성직자의 성(sexuality)이라는 베일리가 좋아하는 두 가지 놀림의 대상이었고, 남성다운 수도승이 그의 수도승임을 방어했듯 학자는 자신의 남성성을 옹호했다(444). 그러나 과연 학자의 이야기가 남성의 완전 지배를 주장하는 남성적인 이야기일까? 베일리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남성성이 의심되는 젊은이로서, 아직 성직록을 받지 않은(GP 291) 학자로서, 유명한 작가의 이야기를 번역하는 스토리텔러로서 학자는 위협적인 진행자 베일리와 페트라르카와 라틴어 출처 텍스트라는 문학적인 권위에 의해서 구성된 남성적인 세상에서 주변부의 불안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Hansen 203-04). 베일리의 놀림이 시사하는 것처럼 학자는 사회적으로 애매한 위치에 있다. 그는 페트라르카 풍의 문인이며 책에 전념하는 삶을 살지만 성직의 삶이 아닌 세속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물이기에 누구보다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는 학식은 있으나 가난하고, 언어의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행사할 사회적 지위는 가지고 있지 않다. 스프링에 따르면 학자는 페트라르카를 숭배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베일리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그를 교정한다. 바스의 여인의 힘없는 자에 대한 옹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그의 풍자적인 후기에서 그녀를 비판한다(366).

학자의 수동성은 그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리젤다의 수동성을 예상하게 하고 그와 베일리의 관계는 그리젤다와 월터의 관계와 비슷하다는 레리의 지적(267)은 적절하다. 딘쇼는 학자/그리젤다, 페트라르카/월터라는 동일시 구조(137)에다 베일리를 “월터 지망생”(would-be Walter; 136)이라 하여 그리젤다와 학자, 월터와 베일리를 동일시한다. 그리젤다가 “말로나 찡그린 표정으로”(by word ne frownyng contenance; 356) 월터에게 반대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한 대로 학자도 베일리에게 반대의 말이나 표정을 짓지 않는다. 「총서시」에서 이야기 대회를 제안하고 이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순례길에서 쓰는 모든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베일리의 제안은 특히나 가난한 학자에게는 터무니없는 횡포이다. 베

일리는 이 말을 두 번이나 한다(GP 802-04; 832-34). 학자는 원하지 않아도 따를 수밖에 없다. 「총서시」 마지막에서 제비를 뽑을 때 “수줍음은 버리고”(GP 840)라는 다소 남성에게 모욕적일 수 있는 베일리의 말에 학자는 순순히 복종하는데, 5부에서 “떠들썩한 목소리”(boistuously; 791)로 말하는 월터와 건장하고 떠들썩한 베일리의 모습이 겹쳐지기도 한다. 베일리와 월터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순례자들의 이야기 게임을 주재하고 판단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도 그의 명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힘/권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라는 베일리의 공격적인 요구에 학자는 그리젤다 이야기를 하며 종종 월터에 대한 반감을 독자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자신의 반감도 드러낸다. 학자는 월터의 과도함을 비난하기 위해 몇 번이나 이야기를 중단하는데, 이는 월터 뿐만 아니라 베일리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기도 하지 않을까? 또한 그리젤다의 절대적인 복종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라는 데에 학자와의 긴밀한 유사성이 드러난다. 학자는 자기 안의 여성성을 억압해야 하는데, 이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월터의 뜻에 따르겠다는 의지로 기꺼이 모성을 포기한 그리젤다와 마찬가지로 학자는 자신 안의 여성성을 남성중심적인 사회에 맞게 자발적으로 억압하고 남성성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월터라는 강력한 남성상을 만들어 내고 남편의 완전한 지배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

한편 이야기의 서두에서 베일리의 명에 “온전히 복종”(24)하겠다는 학자는 이에 대한 반항을 숨기고 있다. 학자는 그리젤다 이야기 속에 교묘히 자신의 이야기를 끼워 넣는다. 학자가 베일리나 바스의 여인으로부터 받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모욕은 그리젤다가 일련의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시련을 당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학자는 그리젤다의 복종을 수동적이라기 보다 능동적으로 만들으로써 (Reiman 368; Severs 233-37) 자신의 입장을 드러낸다. 그리젤다의 복종을 더 강조하면서도 그녀의 복종을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고 적극적으로 만든다. 월터를 떠나며 당당히 자신의 몸을 가릴 옷을 요구할 때 그리젤다는 원전에서보다 더 굳건하고 용기 있는 말(880-82; 876)을 한다(Severs 136). 그리젤다의 여성으로서의 역설적인 위치—무력함으로 인하여 힘을 가지게 되고 그녀가 완전하게 약하기 때문에 강하다(Hansen 190)—는 현실에서 가난하고 사회적 지위도 없는 학자의 위치를 상기시키며, 그가 그리젤다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이야기 게임을 통솔하고 있는 여관 주인에게 복종하겠다고 하지만 학자는 명령에 복종하면서 동시에 불복종한다. 그는 설교하지 말라는 베일리의 경고(12-13)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이야기를 한다. “우리에게 즐거운 이야기를 해주오”(Telle us som myrie tale; 9)라는 여관 주인에 말에 복종하겠다고 하면서 말한 「학자의 이야기」는 전혀 재밌거나 즐겁지 않다. 베일리가 모두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19-20) 이야기해 달라고 했지만 그가 하는 월터와 그리젤다의 이야기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괴물과 괴물스런 아내’ 이야기로 월터와 그리젤다 모두 ‘괴물의 자손’(the grandchildren of monsters; Sledd 75-76)이다. 행복한 결말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신나지”(in better cheere; 7) 않는다. 또한 학자는 후기에서 이야기의 도덕적 적용을 거부하는 척 함으로써 그의 슬프고 진지한 이야기를 장난스런 언행으로 왜하시켜 버려 베일리가 정한 행동의 기본 규칙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Middleton, “Chaucer” 45). 학자와 그리젤다를 동일시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는 바로 학자의 이중적인 태도이다. 학자와 독자들 눈에 그리젤다는 덕스럽다기보다 가련한 존재이다(Reiman 363). 학자는 그리젤다에게 공감하고 동정하나 그녀를 바람직하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후기에서 “어떠한 학자도 참을성 많고 친절하단 그리젤다와 같은 여자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쓸 이유를 가지지 못하게 하라”(Ne lat no clerk have cause or diligence/ To write of yow a storie of swich mervaille / As of Grisildis pacient and kynde; 1185-87)며 자신을 조롱하기도 하는 학자의 모습은 학자 내면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그는 감정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연민을 느끼지만 스스로도 자신을 바람직하다고 여기지는 않는 이성의 소유자이다. 우리가 그리젤다를 동정하고 그녀의 인내에 감탄하는 것과 비슷하게 학자가 베일리의 놀림과 명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동정하게 되고 그의 이야기와 스토리텔링에 교묘히 숨겨진 아이러니와 역설에 감탄하게 된다.

## V. 맺는 말

프레스톤(Raymond Preston)의 믿음처럼 학자의 이야기가 과소평가된 것은 완전하게 이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51). 필자는 이 이야기의 핵심을 서술자인 학

자라는 인물에 두었다. 『캔터베리 이야기』에서 무례한 개인적인 공격이 이 학자에게 가해지는 것은 키트리지의 지적대로 조용한 태도와 습관적인 과묵함이 공격하기에 안전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 때문이다(67). 그러나 마르고 금욕적이고 사심 없이 학문에 전념하는 이상적인 학자의 모습을 한 그의 이야기는 유용한 도덕적 일화를 요구하는 독자들의 암묵적인 요구를 좌절시키고 그럼으로써 풍자한다(Middleton, “Chaucer” 19-20). 학자는 「총서시」에서 묘사되는 사람에게서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지배적인 베일리의 명령에 온순하게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학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Me thynketh it a thyng impertinent; 54)라며 겉으로는 비난조의 틀 안에서 페트라르카의 이야기를 번역함으로써 은근히 베일리의 명령에 맞선다. 이는 지적인 자의식을 가진 학자가 자신 안에 무례함(impertinence)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암시한다(Hansen 197). 또한 여러 비평가들이 지적해온 바 학자가 페트라르카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신과 페트라르카 사이에 거리를 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서사에서 페트라르카의 작품을 옮기면서 페트라르카 이야기 “적절하지 않다”(54)며 냉담하고 비판적인 눈길을 던진다. 이는 카리더즈의 지적처럼 학자가 페트라르카 이야기의 도덕에 만족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229), 일종의 권위에 대한 반항이라고 볼 수도 있다. 분명히 그는 다른 학자들과 자신을 반대 위치에 놓고, 932-38행에서 보듯이 여성적인 힘과 겸손을 찬양한다. 학자가 베일리나 바스의 여인의 말 속에 함축된 전형화된 학자-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실제 세계와 무관한 이상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결혼한 여자를 증오하는-를 놀리는 것은 자신이 그런 전형적인 학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카리더즈의 지적(231)은 옳다. 학자는 연구하는 삶을 사는 페트라르카적 이상에 헌신하여 세속적인 세상에 존재하기를 거부하는(Middleton, “Chaucer” 45-46) “무력한 상아탑 공상가”(an ineffectual ivory tower dreamer; Lanham 165)가 아니다. 어쨌든 그는 이야기에서 “고상한 스타일”(heigh style; 18)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심원한 이상을 위해 기이한 행동을 용인하지도 않았으며, 여성에 대해 칭찬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의 이야기의 도덕적 교훈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기를 아이러니컬하게 철회하는 것을 보면 학자는 보이는 바와 다르게 코믹하고 급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이 작품에서 시인 초서와 작품 속의 서술자인 순례자 초서가 다르다는 이중

비전(double vision)으로 인해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서술자의 두드러지는 순진함이 초서가 사용하는 주된 아이러니 장치이기에(Johnston 147), 학자와 지식 그 자체에 대한 서술자의 존경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그의 말이 “도덕적인 미덕”(GP 307)으로 가득하다는 말에서 “말”(speche; GP 307)이 겉모습과 실제 사이의 간격을 만들어 아이러니한 느낌을 준다. 학자에게는 어울리지 않게 그의 이야기는 모순과 역설로 해석이 어려운 이야기이다. 성인 열전이나 기독교 로맨스는 종종 겉으로 보기에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기독교적 미덕인 인내, 온화함, 겸손 등이 가지는 역설적인 힘을 강조한다. 「학자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 차원 뿐만은 아니다. 그리젤다가 보통 여자들이 모방할 본보기가 아니고, 이야기의 진정한 도덕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리젤다 이야기 속에서 이중의 목소리나 번뜩이는 아이러니를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는 그리젤다의 아이러니가 아니라 학자의 아이러니이다(Frese 141). 키트리지는 이 특이한 학자가 종교와 도덕적인 미덕을 위해 강력한 아이러니를 거리낌 없이 사용한다고 하지만(73),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서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에 학자가 사용한 아이러니의 진정한 목적을 다른 이유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 학자는 의도적으로 베일리의 명령의 모든 부분에 교묘히 대항한다. 아이러니에 의존하는 간접적인 대응이 표면적으로는 복종하는 듯 보이면서 타격을 가하기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셔터스(Lynn Shutters)는 월터가 자신의 명령을 완수하는 아내의 능력에 허를 찔리고 당황해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는데(74), 이는 직접 진술되지는 않지만 학자가 그의 이야기를 끝냈을 때 베일리가 보이는 반응을 보는 듯하다.

미첼은 마치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도덕적이고 신학적인 사색을 불러일으켜서는 의도에서인 듯 수사(Friar)나 소환리(Summoner)의 이야기보다 학자의 이야기는 차이, 애매성, 은밀함(dissimilitude, ambiguity, and secrecy) 등 우화(parable)의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캔터베리 다른 이야기나 대부분의 도덕적 이야기(exempla) 보다 덜 전형적(paradigmatic)이고 실용적이어서 우화라기보다 패로디에 가까운 느낌을 준다고 하는데(5), 결국 이야기 자체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에 하나의 도덕적 본보기의 우화라고 주장한다(17). 그의 주장대로 그리젤다의 겸손이 단순히 모방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도덕

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이야기가 도덕적 본보기(exemplum)가 될 수 있을까? 「학자의 이야기」는 정반대의 가능성 사이에서 양극단화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월터는 신의 절대적인 힘을 보여주는 한편 냉정하고 잔혹한 남편의 모습을 보인다. 한없이 인내하는 그리젤다는 성인과도 같지만 한편으로는 자기학대적(masochistic)이다. 문제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이다(Mitchell 3). 학자의 이야기의 아이러니하고 우스운 조롱조의 결말인 후기는 성 대결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저항하고 이기라고 촉구함으로써 그리젤다 이야기의 메시지를 전복시켜 버린다. 그의 조용하고 진지한 기질에서 기대할 수 없는 뭔가가 이야기 속에,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의 목소리에 담겨 있다.

「학자의 이야기」의 가정 내 권력 투쟁과 권력의 남용에 초점을 맞춘 엘리스는 하인이 괴물이 되고, 아내가 하인이 되며, 자식이 아내가 되는 등 모든 전도(reversal)가 가능한 불안정한 상황이 그리젤다의 불안정한 결혼 생활의 본질을 예시해 준다고 한다(“Domestic” 102). 모든 전도가 가능한 상황은 바흐친의 카니발과 연관되며 전복성에도 연결된다. “완고한 후작은 그러한 아내의 한결같음에 연민을 더 이상 억누를 수가 없었다”(This sturdy markys gan his herte dresse / To rewen upon hire wyfly stedfastnesse; 1049-50)라는 구절에서 보듯이 굵 힘으로써 굳건하게 서는 그리젤다의 역설적인 힘을 통해 결국은 남성을 바꾸는 여성의 힘을 보여준다는 측면이 지닌 전복성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자의 이야기는 복종의 이야기라고 비난 받아온 중세 이야기를 결국은 복종함으로써 지배한다는 전복적인 이야기로 만들고, 그리젤다의 전복적인 힘을 보여주어 우리의 비판적인 저항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이를 복돋운다. 학구적이고 겸손하고 온화함이 강조되는 모습의 학자가 이야기 하는 명백히 정치적인 힘의 역학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야기는 아이러니컬하다.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지니고 있는 「학자의 이야기」에 내포된 많은 아이러니와 역설, 잠재적인 전복성 등은 이전의 종교적 알레고리나 바스의 여인에 대한 응수라는 측면이 아니라 새로운 신학적, 사회적,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는 학자가 지닌 복잡한 내면의 아이러니에서 비롯된 것이다.



## 인용문헌

- Armstrong, Elizabeth Psakis. "The Patient Woman in Chaucer's *Clerk's Tale* and Marie de France's *Fresne*." *The Centennial Review* 34.3 (1990): 433-448.
- Ashe, Laura. "Reading like a Clerk in *The Clerk's Tale*." *Modern Language Review* 101.4 (2006): 935-44.
- Astell, Ann W. *Chaucer and the Universe of Learning*. Ithaca: Cornell UP, 1996.
- Baker, Denise N. "Chaucer's Clerk's Tale and the Monstrous Critics." *Postscript* 3 (1986): 61-68.
- Blamires, Alcuin. *Chaucer, Ethics, and Gender*. Oxford: Oxford UP, 2006.
- Bodden, M. C. "Disordered Grief and Fashionable Afflictions in Chaucer's 'Franklin's Tale' and *The Clerk's Tale*." *Grief and Gender: 700-1700*. Ed Jennifer C. Vaughn. New York, NY: Palgrave Macmillan, 2003. 51-63.
- Carruthers, Mary. "The Lady, The Swineherd, and Chaucer's Clerk." *The Chaucer Review* 17.3 (1983): 221-34.
- Chaucer, Geoffrey. *The Canterbury Tales*. Ed. Larry D. Benson. *The Riverside Chaucer*.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1987.
- Cooper, Helen. *The Canterbury Tales: Oxford Guides to Chaucer*. 2nd ed. Oxford: Oxford UP, 1996.
- Coulton, G. G. *Medieval Panorama: The English Scene from Conquest to Reformation*. New York: W. W. Norton, 1938.
- Dinshaw, Carolyn. *Chaucer's Sexual Poetics*. Wisconsin, Madison: U of Wisconsin P, 1989.
- Ellis, Deborah S. "Domestic Treachery in *The Clerk's Tale*." *Ambiguous Realities: Women in the Middle Ages and Renaissance*. Ed. Carole Levin. Detroit: Wayne State UP, 1987. 99-113.
- . "The Color Purple and the Patient Griselda." *College English* 49.2 (1987): 188-201.
- Finnegan, Robert Emmett. "'She should have said no to Walter': Griselda's promise in *The Clerk's Tale*." *English Studies* 75.4 (1994): 303-21.
- Frank, Jr. Robert Worth. "Pathos in Chaucer's Religious Tales." *Chaucer's Religious Tales*. Eds. C. David Benson and Elizabeth Robertson. Rochester, NY: D.S. Brewer, 1990. 39-52.
- Frese, Dolores Warwick. "Chaucer's *Clerk's Tale*: The Monsters and the Critics Reconsidered." *The Chaucer Review* 8 (1973): 133-46.

- Ganim, John M. "Carnival Voices and the Envoy to *The Clerk's Tale*." *The Chaucer Review* 22.2 (1987): 112-127.
- Georgianna, Linda. "*The Clerk's Tale* and the Grammar of Assent." *Speculum* 70.4 (1995): 793-821.
- Grinnell, Natalie. "Griselda Speaks: The Scriptural Challenge to Patriarchal Authority in 'The Clerk's Tale'." *Critical Matrix: The Princeton Journal of Women, Gender, and Culture* 9.1 (1995): 79-94.
- Hansen, Elaine Tuttle. *Chaucer and the Fictions of Gender*.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92.
- Johnston, Andrew James. *Clerks and Courtiers: Chaucer, Late Middle English Literature and the State Formation Process*. Heidelberg: Winter, 2001.
- Kendrick, Laura. "Comedy." *A Companion to Chaucer*. Ed. Peter Brown. Oxford, UK; Malden, Mass.: Blackwell, 2000. 90-113.
- Kittredge, G. L. "Chaucer's Discussion of Marriage." *The Canterbury Tales: A Casebook*. Ed. J. J. Anderson. London: Macmillan, 1974. 61-92.
- Lanham, Richard A. "Chaucer's *Clerk's Tale*: The Poem Not the Myth." *Literature and Psychology* 16 (1966): 157-165.
- Lerer, Seth. "The *Canterbury Tales*." *The Yale Companion to Chaucer*. Ed. Seth Lerer. New Haven: Yale UP, 2006. 243-94.
- McCall, John P. "*The Clerk's Tale* and the Theme of Obedience." *Modern Language Quarterly: A Journal of Literary History* 27.3 (1966): 260-69.
- Middleton, Anne. "Chaucer's 'New Men' and the Good of Literature in the *Canterbury Tales*." *Literature and Society*. Ed. Edward W. Said.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80. 15-56.
- . "The Clerk and his Tale: Some Literary Contexts." *Studies in the Age of Chaucer* 2 (1980): 121-50.
- Mitchell, J. Allan. "Chaucer's *Clerk's Tale* and the Question of Ethical Monstrosity." *Studies in Philology* 102.1 (2005): 1-26.
- Pearsall, Derek. *The Canterbury Tales*. London; New York: Routledge, 1985.
- Phillips, Helen. *An Introduction to the Canterbury Tales: Reading, Fiction, Context*. New York: St. Martin's, 2000.
- Preston, Raymond. "Tales of the Man of Law and Clerk." *Discussions of the Canterbury Tales*. Ed. Charles A. Owen, Jr.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1961. 49-64.
- Raby, Michael. "*The Clerk's Tale* and the Forces of Habit." *The Chaucer Review*

47.3 (2013): 223-246.

- Reiman, Donald H. "The Real Clerk's Tale; or, Patient Griselda Exposed." *Texas Studies in Literature and Language* 5:3 (1963): 356-73.
- Rossiter, William. "'To Grisilde Agayn Wol I Me Dresse': Readdressing *The Clerk's Tale*." *The Canterbury Tales Revisited-21st Century Interpretations*. Ed. Kathleen A. Bishop. Newcastle-upon-Tyn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08. 166-193.
- Rudd, Gillian. *The Complete Critical Guide to Geoffrey Chaucer*.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01.
- Severs, J. Burke. *The Literary Relationships of Chaucer's Clerk's Tale*. Hamden, Connecticut: Archon Books, 1972.
- Shutters, Lynn. "Griselda's Pagan Virtue." *The Chaucer Review* 44.1 (2009): 61-83.
- Sledd, James. "*The Clerk's Tale*: The Monsters and the Critics." *Modern Philology: A Journal Devoted to Research in Medieval and Modern Literature* 51.2 (1953): 73-82.
- Spearing, A. C. "*Chaucer's Clerk's Tale* as a Medieval Poem." *Criticism and Medieval Poetry*. 2nd ed. London: Edward Arnold, 1972, 76-106.
- Sprung, Andrew. "'If it youre wille be': Coercion and Compliance in *Chaucer's Clerk's Tale*." *Exemplaria: A Journal of Theory in Medieval and Renaissance Studies* 7.2 (1995): 345-69.

## ABSTRACT

**The Clerk's Ironic Storytelling in *The Clerk's Tale*****Hee-Jung Sun**

*The Clerk's Tale* has proved Chaucer's least tractable tale for modern readers. Throughout the *Clerk's Tale*, meaning and intention are the problems. The modified reading of the *Clerk's Tale* presented in this paper turns the chief emphasis from the question of religious allegory or sovereignty in marriage to the larger question of the irony and paradox through an exploration of the character of the Clerk. Since nothing in the *General Prologue* or later indicates that the Clerk is other than devout and intelligent, one must re-examine his tale to see whether this sober and unworldly figure is, in fact, subtler than his fellows and the critics have recognized. There is a good deal of self-revelation of the Clerk in Griselda's story. The Clerk is a complicated figure of utter submissiveness and essential silence like Griselda, and he disguises himself, his motives, and aggressive humour cleverly.

Among the Canterbury pilgrims, the highly educated Clerk is the one who can use irony and paradox such as the principle of "loser wins" subtly. With the tale, the Clerk challenges an audience as Griselda's impassive patience challenges Walter. The Clerk, with his rationalist bent, builds our critical resistance into Griselda's story, and even encourages it. The fact that the purpose of this tale is to inspire critical response shows the potential subversiveness of the *Clerk's Tale*. It could be viewed as a poem about either a woman's subversive or her silenced subversion. The Clerk's version of the Griselda story seems to entail a revelation of the male speaker's anxiety about his manliness, his status and identity. This quiet and ascetic figure is often regarded by modern critics as an ideal portrayal of the selfless man of learning. His tale and Envoy, in fact, clearly suggest that this Clerk has his own irony. It is no wonder that the Clerk makes an ironic judgement on all established authorities.

**Key Words** | Chaucer, *Canterbury Tales*, *The Clerk's Tale*, Clerk, irony